

신비로운 사진의 명소

‘벽제역’

글 · 사진 하야시 마카(고양시 관광서포터즈)



철도가 있는 풍경은 언제나 마음을 끌린다.

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보게 된 신비로운 사진 한 장. 그 아름다운 사진을 한참 동안 보다가 사진 속 풍경이 도대체 어디인지 무척 궁금해졌다. 알아보았더니 덕양구 고양동에 위치한 벽제라는 걸 알게 되었고 요즘 아는 사람은 아는 사진의 명소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.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다니!

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에 그 주말에 바로 남편과 함께 벽제역으로 떠났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관광서포터즈로서 다시 찾아 간 것이다.

벽제역을 다녔던 교외선은 2004년부터 여객운행을 정지시키고 화물열차만 다니고 있다. 현재는 폐역이 된 벽제역

이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.

벽제역은 지하철 3호선 삼송역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다.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건널목이 보이니 헤매지 않고 바로 찾아갈 수 있다.

지하철이 발달한 수도권에서는 건널목도 보기 드문 것이기에 여기서 한번 카메라 셔터를 눌러 본다. 내 고향 일본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그러기에 그리운 풍경



이기도 하고 한글 표지판이 있는 건널목이 신선해 보이기도 했다.

우선 벽제역에서 능곡 방향을 보면 넓은 풍경 속에 철도길이 3개로 갈라지면서 쪽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. 여기가 두 번째 포토존이다. 가리는 건물 하나 없이 앞으로 쪽 이어가는 철도 풍경은 압권이다.

우리는 여기서 사진도 찍고 철도 위를 장난삼아 걸으면서 재미있게 놀기도 했다. 이어지는 철도의 더 앞에는 어떤 경치가 보일지 궁금했는지 더 멀리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. 하지만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수시로 있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면서 놀아야 한다는 점이 여기서는 매너인 것 같다.

철로의 풍경을 즐긴 다음, 반대쪽 일영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. 단선 철로가 양쪽에 우거진 풀 사이로 이어지고 있다.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벽제역의 매력이 아닌가 싶다.

조금만 가면 바로 언덕 밑을 지나가는 작은 터널이 보이기 시작한다. 우거진 풀 때문인지 터널을 보자 모험심이 나는 것 같은 두근거림이 느껴졌다.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만 같은... 사실은 이 터널 속이야말로 벽제역의 메인 포토존이다.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바라보는 바깥경치가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다.



이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터널 속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. 커플, 부부, 가족... 오는 사람들도 다양하다. 아름다운 풍경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으면 좋겠지만 어두운 터널에서 바깥을 찍는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. 역광이 있기 때문이다. 몇 장 찍고 알게 된 것은 사람을 찍으려고 하지 말고 바깥 경치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 그림자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찍어야 한다는 것. 이것이 여기서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한 팁이라고 말할 수 있다.

우리는 특히나 사진을 잘 찍는 실력도, 좋은 카메라도 없어서 조금 고생했지만 그래도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 나름대로 잘 나온 것 같아 다행이다.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정말 화보 같은 사진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사진도 찍고 철도 위에서 놀기도 하다 보니 한 시간이 금방 지난 것 같았다. 벽제역에서 잠시 현실과 떠나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멋진 풍경 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었다.

- 주소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189-3
- 가는방법 지하철 3호선 삼송역 하차 → 삼송역 6번 출구 790, 033, 053번 버스 승차 → 벽제역 앞 버스정류장 하차